



위기는 도둑처럼 찾아온다

우리가 동족상잔의 비통한 전쟁을 겪었던 것이 언제였던가?
그로부터 어언 50여년
그러나 그 처참한 상흔은 우리에게 아직도 생생하다.

그런 한국인들에게
남의 땅에서 일어난 참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다.
지구 위의 어느 누구보다
우리는 몸 떨리는 충격 속에 그것을 보아야 했다.
그것은 어느 날 어느 순간
우리 눈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경이었다.

그같은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
지금 우리는
화해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.
그러나 이 땅에 평화가 완전히 뿌리내릴 날이 언제인가?
그 날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.

화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
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.
위기는 예고가 없다.
모두 잠들었을 때 도둑처럼 찾아온다.
평화로우며 전쟁의 위험을 잊지 않고
안전할 때 위기에 대비하는 지혜
그것이 실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.